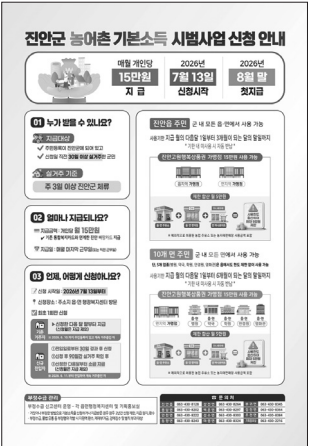


진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군민 1인당 30만원(7~8월분) ‘빠망카드’ 로 지급… 9월부터 매월 말 15만원 자동 충전

진안군은 오는 3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첫 지급을 실시한다. 지급 대상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다. 매월 15만 원씩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이번이 첫 지급으로 7월분을 소급해 8월분과 합산 1인당 총 3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 수단은 선불카드인 ‘빠망카드’이며, 최초 신청 후에는 별도 신청 없이 매월 말 자동 충전되는 방식으로 9월말부터는 15만 원씩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거주지별로 2개 권역(진안읍 / 10개 면)으로 나누어 사용처가 다르다. 지역 내 상권 활성화와 소비 선순환을 위해 사용처는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제한된다. 진안읍 거주자는 진안군 전 지역에서 사용 가능하나, 면 지역 거주자는 진안읍을 제외한 관내 10개 면 지역에서만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병원, 약국, 영화관, 학원, 안경



진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포스터

점음 거주지와 관계없이 진안군 전역에서 기본소득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편의점·주유소·면지역 하나로마트

는 한도가 있다. 대형 소비처로 카드 사용이 편리한 것을 막기 위해 편의점, 주유소, 각 면 지역 농협하나로마트는 읍·면 거주자 구분 없이 월 5만 원까지만 결제할 수 있다. 다만, 진안읍 하나로마트는 이 한도와 관계없이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빠망카드는 주소지 읍·면에서 24일부터 28일까지 각 읍면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또는 개별적으로 읍면을 방문하여 카드 수령이 가능하다. 카드 수령 일정, 미수령 시 대처, 분실 시 재발급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목적으로 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다. 진안군은 지난 6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이번 8월 3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42회 무주군민의회장 수상자 발표

5개 부문 수상자 선정

무주군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행복 증진에 기여한 공로자를 선정해 제42회 무주군민의회장 수상자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주군민의회장’은 지역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문화체육장에 이운승 씨, 산업근로장에 김두환 씨, 공익장에 석진

숙 씨, 효행장에 윤정순 씨, 애향장에 박지용 씨가 각각 선정됐다. 문화체육장 수상자 이운승 씨(70)는 무주군 관광협의회장과 사진가협회장 등을 맡아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근로장 수상자로 선정된 김두환 씨(65)는 포도와 토마토 산업 발전에 힘쓰며 지역 농산물 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

받았다. 공익장 수상자 석진숙 씨(69)는 무주군 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활동하며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활동과 지역사회 봉사에 힘써왔다. 효행장을 받는 윤정순 씨(57)는 지병을 앓던 아버지를 정성껏 간호하고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모시는 등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변의 귀감이 됐다. 애향장 수상자 박지용 씨(58)는 재경 무주군민회 사무총장을 지내며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고 장학금 기부 등을 이어오며 고향 발전과 지역사회 높이에 힘을 보탰다. /무주=손흥기 기자

장수군, 민선9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회 개최

장수군은 지난 24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이정우 장수 부군수 주재로 민선9기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실천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민선9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정우 부군수를 비롯해 류지봉 행정복지국장, 공약사업 담당 부서장들이 참석해 5대 분야, 21개 중점과제, 61개 실천과제 공약사업의 추진 방향과 세부 실행방안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분야별로는 △(기본사회) 분야 양수발전소 유지, 장수정 기본사회 구축

등 14개 사업 △(농축산·산업) 분야 저탄소 한우산업지구 조성, 사과 안정생산 신기술 지원 확대 등 17개 사업 △(인구·경제 분야) 면 소재지권 LPG 배관망 공급, 국립 소방심사수련원 유치 등 15개 사업이다. 또한 △(문화·관광 분야) 장수군 반값 여행 프로그램, 대곡제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 등 5개 사업 △(일반행정 분야) 전 마을 현장 방문 및 분야별 단체 순회간담회, 청렴 공직문화 정착 등 10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모두가 누리는 행복, 내일이



더 기대되는 장수’를 실현할 공약사업인 만큼 군민 편익을 최우선에 두고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인지 꼼꼼히 살펴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에는 논의된 실천계획에 대해서는 군민배심원단 회의를 거쳐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은 25일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제31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모두의 성평등, 더 넓고 더 깊게’

무주군, 제31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열려

무주군은 25일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제31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양성평등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하고 군민 모두가 함께 하는 성평등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지역 내 기관·사회·단체장 여성단체 회원 등 3백여 명이 참석해 성평등 문화 확산과 실천 의지를 다졌다. ‘모두의 성평등, 더 넓고 더 깊게’를 주제로 열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칼럼발언주(여성단체 문화공연 역량강화사업의 일환) 등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토크 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다. 토크 콘서트는 ‘함께라서 더 좋은 우리’라는 주제로 존중과 공감의 메시지를 전하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모두의 성평등, 더 넓고 더 깊게’라는 슬로건을 함께 제창하며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부대행사로 마련된 ‘스마트폰 활용 사진 전시회’에서는 무주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교육생들이 직접 촬영한 일상의 풍경과 인물, 행사 모습 등이 선보였다. 수강들은 스마트폰 사진 수업을 통해 다양한 촬영 기법은 물론, AI를 활용한편집 등 배운 것으로 알려졌다. 기념식에서는 최경화 무주군여성사원봉사회 회장과 홍민자 한국여성농업인무주군연합회 부회장이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의 권익 증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무주군수 표창을 받았으며, 무주군의회 의장상은 오승자 소비자교육중앙회무주군지회 회원이,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상은 김성곤 구천동농협 조합장이 각각 수상했다. 이날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재)무주군교육발전정책재단에 장학금 2백만 원을 기부했다. /무주=손흥기 기자

장수군, 여름방학 ‘역사 인문학 프로그램’ 성료

장수군은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한 특별 역사인문학 프로그램 ‘장수에서 품은 꿈, 한양에서 왕이 되다’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수역사전시관과 장수작은도서관, 장수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사)전북가야문화원이 함께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장수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판봉샘 설화를 바탕으로 어린이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조선 건국의 역사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 강의와 현장 답사를 연계해 진행했다. 첫째 날인 21일에는 전문 학예사가 장수 지역에서 깊이 있는 역사 스토리텔링 강의를 진행했다. 참여 어린이들은 금강의 발원지인



판봉샘에 얽힌 태조 이성계의 설화를 듣고, 이와 연계된 교과 과정 속 조선 건국의 역사를 쉽고 흥미롭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인 22일에는 학생들이 서울로 이동해 조선의 중심지였던 경복궁 일원과 국립중앙박물관을 답사했다. 학생들은 전날 강의를 통해 배운 조선 건국과 한양의 역사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며 교과서 속 지식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용담향교, 세대통합 기로연 행사 성료

진안향교(전교 이한석)와 용담향교(전교 이부용)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전통 유교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2026년 세대통합 기로연’ 행사를 문예체육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춘성 진안군수, 김명갑 군의장, 전용태 도의원을 비롯해 지역 유림과 어르신,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행사에서는 장수를 누리며 지역 사회의 모범이 되어온 송상완, 오길현, 김의곤 어르신 세 분에게 장수상을 수여하며 민수무강을 기원하고 존경의 뜻을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 치유골목 신규 매장 3곳 개소

진안군은 산림치유와 연계한 지역활성화 및 방문객 유치를 위해 ‘진안고원 치유골목’ 내 신규 매장 3곳의 문을 열었다. 진안군은 25일 10시 진안고원치유골목 다독임에서 2026년 산림치유연계 지원사업(치유골목 조성사업) 신규매장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소하는 신규 매장은 △다독임 △차유래타 △마이숲 나무병원 등 총 3개의 업체로 각 매장별 특색있는 치유 콘텐츠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개소식 당일 경과보고 및 참여 기업 인사에 이어, 현관·오픈식과 함께 매장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양대체전 대비 식중독 신속검사차량 운영

진안군은 다가오는 양대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방문객 및 선수단의 안전을 위해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광주지방산림청의약품안전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진안군 만남 힐터에 배치했다. 이어 오는 31일부터 9월 1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의 역사

전주매일 캠페인

호남의 곡창지대를 지키다

완주·진안 응치전투

완주·진안 응치전투(熊峙戰鬪)는 임진왜란 초기인 1592년, 일본군의 전라도 진출을 막기 위해 현재의 전북 완주군 소양면과 진안군 부귀면 경계인 응치(곰티재)에서 벌어진 전투이다. 1592년, 일본군은 금산을 점령한 뒤 전주로 진격하려 했다. 이에 김계군수 정담, 나주판관 이복남, 의병장 황박, 해남현감 변응정 등이 관군과 의병을 이끌고 응치에서 방어에 나섰다. 응치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치열하게 저항했지만, 일본군의 대규모 공격으로 정담 등 많은 장수와 병사들이 전사했다. 전투 직후 일본군이 잠시 고개를 점령했으나, 이어진 안덕원 전투 등에서 조선군이 반격하면서 결국 일본군은 금산으로 퇴각했다. 이 전투는 호남을 방어해 전주와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전투로 평가된다. 현재 응치전적은 2022년 12월 30일 국가 사적으로 지정됐으며,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일원, 총 23만2,329㎡(완주 13만3,000㎡, 진안 9만9,300㎡) 규모다.

**본 배경은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